

12
2018

재외동포의

창

특집: 동포재단 초청 고려인 유공동포 한국 역사·문화 체험



공동체 축제로 이어져 온 한반도 고유의 세시풍속 놀이 '씨름'

인류무형유산 첫 남북공동 등재... “평화·화해 위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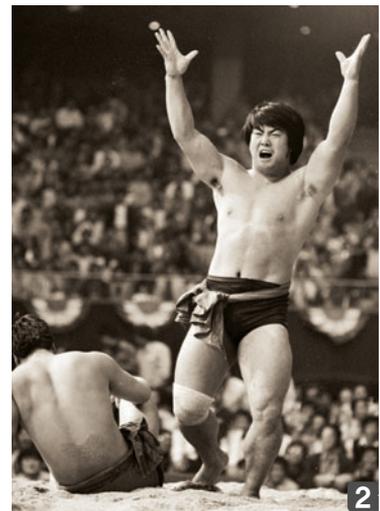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에 있는 고구려 고분 각저총(角抵塚) 벽화는 씨름의 유구한 역사를 입증하는 유물이다. 널방 한쪽에 두 사람이 상대 허리춤을 붙잡고, 몸을 숙인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됐다. 심승구 한국체대 교수는 “문헌상 씨름 첫 기록은 고려 후기인 14세기 초반에 등장한다”며 “고려사에 충혜왕이 국정을 대신에게 맡기고, 날마다 내시들과 오락용 씨름인 ‘각력희’(角力戲)를 했다는 대목이 있다”고 설명했다.

씨름은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는다. 16세기 무렵부터 단오에 여성은 그네뛰기, 남성은 씨름을 즐겼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씨름 저변은 더욱 넓어졌다. 씨름은 일본 전통 무예인 스모(相撲)처럼 두 명이 맨손으로 하는 운동이지만, 다리와 허리에 살바라는 끈을 매고 다리를 이용한 기술이 발달한 점이 특색이다.

심 교수는 살바씨름과 다리씨름에 이어 ‘놀이씨름’을 한국 씨름의 특징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의례와 무예 속성보다는 누구나 참여하는 놀이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에서 씨름은 개인 경기지만, 공동체 축제로도 기능했다”며 “우승자에게 소를 포상하는 관례는 씨름판을 흥보하고 달구는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박상미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에서 씨름은 신체적 건강함과 남성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며 “세계 곳곳에 씨름과 비슷한 무형유산이 있지만, 공동체를 통해 전승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반도 고유의 세시풍속 놀이 ‘씨름’이 사상 처음으로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을 통틀어 남북이 함께 등재한 첫 사례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는 11월 26일 아프리카 모리셔스 수도 포트루이스에서 개막한 제13차 회의에서 남북의 ‘씨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올렸다. 위원회는 “남북 씨름이 연행과 전승 양상,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결정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참]**



1.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11월 26일 아프리카 모리셔스 수도 포트루이스에서 개막한 제13차 회의에서 남북한의 ‘씨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했다. 정식 명칭은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이다.
2. 1985년 10월 4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천하장사 결승전에서 이만기 선수가 첫판 승리 후 환호하는 모습.



- 02 한국의 얼 공동체 축제로 이어져 온 한반도 고유의 세시풍속 놀이 '씨름'
인류무형유산 첫 남북공동 등재... "평화·화해 위한 결정"
- 04 특집 동포재단 초청 고려인 유공동포 한국 역사·문화 체험
독립유공자 후손 등 45명 "모국 발전상에 자부심 느껴"
- 06 화제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성 열려있다... 그의 결단에 달려"
전용기내 기자 간담회... "김 위원장 답방 두고 국론 분열 있을 수 없다고 생각"
- 08 기획 "아이들이 물 길러 매일 30분~2시간..."
'우물 파기' 지원 앞장 선 탄자니아 한인사회
'이민자 1호' 이태조·이해명 씨 부부... 탄자니아 한인역사의 산증인
- 10 글로벌 코리안 재미동포 여성으로 최초 5선 의원이 된 신디 류 워싱턴 주 하원의원
재일조선족 유일의 한글학교 10년간 이끄는 전정선 교장
심상만 신임 아시아한인총연·아시아한상총연 회장
- 12 한민족 공감 한·인도 교류 상징으로 거듭난 2천 년 전 가락국 김수로왕妃 '허왕후'
모디 총리, 기념공원 행사에 고위급 파견 요청... 韓, 김정숙 여사 방문 '화답'
- 13 지구촌 통신원 무만두, 콩국수... 한식 불모지 伊 사로잡다
음식전문 기자들 상대로 한식 쿠킹 쇼
양국 스타 요리사, 한식 식재료와 조리법 활용해 코스요리 선보여
- 14 동포소식 '美 최초 한인타운' 안창호 선생의 '파차파 캠프' 재조명한 책 출간 외
- 17 동포 캘린더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에 김요진 브라질한인회장 외
- 18 유공동포 "당신은 영웅"... 남수단 교과서에 수록된 '울지마 톤즈' 故 이태석 신부
내년 2월 학교에 배포 예정... 고인의 헌신적 삶 소개
- 19 주목! 차세대 프랑스서 '한지' 이용한 문화재 복원 세계 최고 전문가 꿈꾸는 김민중 씨
박병선 박사 통해 한지 매력 알게 된 후 문화재 복원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
- 20 OKF 뉴스 재단 초청장학생 200여 명 제주서 역사문화체험 외
-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 22 동포문학 '평화의 바람' 답사기
합천강(미국) 동포문학상 중고등부문 우수상
- 24 고향의 맛·멋 편육과 함께 즐기면 더 좋은 사계절 음식, 여주 천서리막국수
춘천막국수와 더불어 '막국수 양대 산맥'... 독특한 맛과 향으로 미식이 유혹
- 26 재단공지

발행인 : 한우성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고려인 유공동포 45명을 초청해 모국의 발전상과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CIS지역 고려인 동포 모국방문 사업'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실시했다.





동포재단 초청 고려인 유공동포 한국 역사·문화 체험

독립유공자 후손 등 45명 “모국 발전상에 자부심 느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고려인 유공동포 45명을 초청해 모국의 발전상과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CIS지역 고려인 동포 모국방문 사업’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동포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큰 유공동포를 초청해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한국사회 발전상과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과 고려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초청 대상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6개국에 거주하는 고려

인 동포 중 형편이 어려운 독립운동가와 강제이주·징용자 후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독립유공자 가운데 구철성 선생의 손자인 황 바체슬라브, 한성걸 선생의 외손녀 정 스베틀라나, 황운정 선생의 외손자 리 베체슬라브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초청 기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견학을 시작으로 한국민속촌, 독립기념관, 임진각, 경복궁, 동대문 등 서울과 경기지역을 오가며 한국의 문화유산 방문과 지역별 역사·문화 체험에 나섰다. 9일에는 청와대 사랑채를 방문하고 환송 오찬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독립운동가 구철성·한성걸·황운정 선생 후손 “선조 공로 기억해줘 감사… 다음에는 北 거쳐 육로로 왔으면”

“모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더욱이 남북한 화해와 통일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어서 더욱 반갑고 기쁩니다.”

재단의 고려인 유공동포 후손 초청사업으로 모국 탐방에 참가한 황 바체슬라브(60), 정 스페틀라나(51), 리 베체슬라브(70) 씨는 독립운동가 구철성·한성걸·황운정 선생의 후손이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선조의 공로를 기억하고 초청해줘 감사하다”며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과 평화 정착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고려인사회에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항공기 디자인 전문가로 러시아 모스크바항공대연구소 연구위원인 황 씨는 일제 강점기 북간도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북로군정서와 대한의용군에서 활동한 구철성 의사의 손자이다.

또 카자흐스탄 카이나르데 총장을 역임하고 아스타나 고교에서 교장으로 재직중인 리 씨는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황운정 의사의 외손자이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정 씨의 외조부 역시 연해주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운 고려혁명군 단원이었다.

황 씨 등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한국민속촌, 독립기념관, 경복궁, 동대문 등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했다.

과주 통일전망대, 도라산역, 임직각 등을 둘러본 것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는 이들은 “남북이 서로 총칼을 맞댄 지역임에도 긴장이 느껴지지 않았다. 통일이 정말로 한 발짝 다가온 걸 실감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독일 통일을 지켜보면서 다음은 한반도가 되기를 늘 기원했다”며 “남북이 힘을 합치면 지금보다 훨씬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에서 선조의 활약상을 확인한 황 씨는 “친인척들에게도 널리 알리려고 사진을 찍었다”며 “첫 모국방문에서 큰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국 방문이라는 소원은 이뤄졌지만 또 다른 소원이 생겼으며 “통일이 되어 다음번에는 선조의 고향인 북한을 거쳐서 육로로 대한민국을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1. CIS에서 온 고려인 유공동포들은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아 선조의 항일투쟁 역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2. 방한기간 청와대 견학에 나선 고려인 동포들.

3. 4박5일간 모국방문 행사에 동참한 고려인들은 남북평화 정착과 통일을 기원했다.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희생자의 자녀로, 러시아에서 온 김 예가테리나(67) 씨는 “조부모로부터 모국인 대한민국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늘 들으며 성장했기에 이번 방문이 아주 뜻 깊다”며 “러시아에서 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놀라워하기 때문에 고려인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우성 이사장은 “중동아시아에 뿌리를 내려 현지화하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려고 마련한 초청행사”라며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느낀 만큼 귀국하면 이를 차세대에 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성 열려있다… 그의 결단에 달려”

전용기내 기자 간담회…

“김 위원장 답방 두고 국론 분열 있을 수 없다고 생각”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조금 더 지켜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가지 우려를 덜었다”며 “북미 간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흑시라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조만간 서울 답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른 시기에 김 위원장 답방과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

등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고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다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해왔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남남갈등을 일으킬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김 위원장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답방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 간 평가가 이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지 않느냐. 거기에 보수·진보가 따로 있고,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유지…
금답방은 한반도 평화정착 모멘텀 제공”**

앞서 한미정상은 11월 30일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





1. 문 대통령이 11월 29일 오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알베라르 아이콘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아르헨티나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 애써준 공로로 아델라 마리아 비고티 데 김(오른쪽) 씨에게 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문 대통령이 11월 29일 오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알베라르 아이콘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우수아이아 지역 화훼농장 '비베로 코레아노'를 통해 성공 신화를 창출한 조옥심 씨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3.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친 문 대통령이 12월 1일 오후 다음 방문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4. 문 대통령이 11월 30일 오후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을 함께했다. 두 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에도 공감했다. G20 정상회의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양자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큰 진전을 위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이른 시일 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거대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 아르헨티나 동포 격려… “한민족 정체성 지키면서도 인정받아”

G20 정상회의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11월 2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포 230여 명을 초청해 만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우수아이아’ 지역에서 화훼농장 ‘비베로 코레아노’를 통해 성공 신화를 창출한 조옥심 씨, 아르헨티나에서 외국인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은 문한림 주교,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근무하는 차세대 동포 변얼 씨 등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한인의 날 정부포상 유공자인 아델라

마리아 비고티 데 김 씨에게 훈장을 주고 현지 동포사회를 위해 애써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씨는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초기 한인들의 이민서류 작성 등 행정절차 지원, 부동산 거래 시 사기 피해 및 부당거래 예방을 위한 무료 법률 자문 등을 해 한인사회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재외동포 유공 훈장 목련장 수훈 대상이 됐다. 문 대통령은 “훈장은 원래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이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는 관할 공관에서 대신해서 전수식을 해왔다”며 “정부가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이른 시일 내 해당 국가를 방문하면 그 훈장을 달아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국민 훈장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훈장을 수여한 분”이라며 청중들의 박수를 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격려사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인정받고 우리의 차세대를 잘 키워주신 동포사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1965년 부산항에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 떠나는 농업이민 1세대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떠나는 배 위의 사람들과 환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시작한 이민생활이 무척 고달팠을 텐데 높은 평가를 받는 동포들을 보면 자랑스럽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프로세스도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창**

“아이들이 물 길러 매일 30분~2시간...” ‘우물 파기’ 지원 앞장 선 탄자니아 한인사회

‘이민자 1호’ 이태조 · 이해명 씨 부부... 탄자니아 한인역사의 산증인

외교부 집계 재외동포 현황(2017년 기준)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 1만853 명이다. 국가별 한인 사회 규모를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3천650명(전체의 3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케냐(1천221명), 가나(726명)이고 4 번째가 탄자니아로 한인 숫자는 641명이다. 킬리만자로 산과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유명한 탄자니아는 한반도의 약 4배 크기의 영토와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1992년 4월 수교했다. 많은 나라가 그렇듯이 탄자니아도 수교 이전에 한인이 먼저 들어갔다. ‘한인 이민자 1호’는 이태조(66) · 이해명(57) 씨 부부다. 남편 이태조 씨가 26년 역사의 탄자니아 한인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부인 이해명 씨는 현재 4년째 한인회장을 맡고 있다.

국내에서 금광회사에 상무로 근무하던 이 씨는 1989년 당시 5천 불 월급에 집세와 차량을 제공해준다는 좋은 조건을 제시받고 부인과 함께 ‘겁 없이’ 탄자니아 땅에 발을 디뎠다. 그러나 현지 금광회사가 1년도 지나지 않아 망하자 고생길이 열렸다. 봉제업을 시작했으나 환율이 떨어져 건딜 수 없게 됐고 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역사업도 마다치 않았다. 연막 소독약을 뿌리는 일이었다. 한국인 지인의 도움으로 생필품 수입상을 할 때는 가방의 돈을 셀 시간이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 물건이 귀하다 보니 한국에서 100원에 들어와 1천 원에 팔아도 될 정도였다. 그러나 값싼 중국 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업도 더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에는 현지의 일본회사에서 제의를 받고 일하게 됐는데 탄자니아 정부에서 문제 삼고 나섰다. 투자자로 들어와 다른 나라 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추방령을 내렸다. 이 씨 부부는 탄자니아 정부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수년간의 재판 끝에 승소했다. 그러나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소송비로 날리고 일본회사도 못 다니게 됐다.

그러는 사이에 한편으로는 탄자니아에 들어오는 한인들이 차츰 늘어났다. 국교수립이 계기였고 그 과정에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이태조 씨는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활발한 성격의 부인 이재명 씨는 선교사를 비롯해 한국에서 누가 오면 너



무 반가워 집으로 모셔 음식을 대접하는 바람에 이 씨 부부가 큰돈을 번 것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지금은 대사관 직원을 비롯해 코트라, 코이카 등 기관과 건설업체들이 진출해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서 경제성장이 7%에 달할 정도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25년도에 극빈국에서 중진국으로 오르기 위해 발돋움하고 있다. 친한파인 존 마구푸리 대통령이 2015년 취임하면서 한국 건설업체들은 탄자니아에서 좋은 기회를 맞았다. 건설부 장관 출신인 마구푸리 대통령은 근면한 한국인의 능력을 잘 알고 있어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병원, 교량, 도로, 상수도를 한국업체가 건설했고 국책사업인 철도 공사의 설계·감리·감독을 한국이 따낸 데 이어 일부 구간 시공도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다. 탄자니아 정부가 올해 1월 말 서울에 대사관을 개설한 것은 가까워지는 양국 관계를 보여준다.

한글학교와 한인교회는 경제 수도 다레살람에 한 곳씩 있다. 한글학교는 15년간 이 씨 부부 집을 빌려 썼고 현재는 한인교회를 이용하고 있다.

Tanzania



2



3



4



5

‘평화의 샘물’ 사업, 한인 단체의 적극 지원으로 확산

탄자니아 한인회 활동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평화의 샘물’ 지원사업이다. 탄자니아는 물 사정이 열악해 다레살람을 벗어나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전기와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어린이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을 아침마다 걸어서 30분~2시간 거리에 있는 상수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웅덩이에 고인 물을 받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해 매우 비위생적이다. 아이들이 물이 없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던 이해명 회장은 적은 돈으로 평화를 알릴 방법은 우물을 파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우물 한 곳을 파는데 드는 비용은 약 5천 불.

이 회장은 개인 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임도재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김점배 아중동한상총연합회 회장에게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흔쾌히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평화의 샘물’ 지원사업은 첫발을 내디뎠다.

첫 우물을 판 곳은 노예시장이 있었던 바가모요 시골 마을

에 있는 케레게와 마핑가 초등학교. 올해 2월 2일 개수식 행사에서 아중동한인한상총연합회 임원들이 준비한 간식과 학용품을 나눠주자 1천여 명 학생들은 잔칫집에 온 것처럼 기뻐했다. 이어 3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총회에서 평화의 샘물 얘기를 들은 민주평통 유럽지역 박종범 회장이 전폭적 후원을 약속하면서 추가 지원으로 이어졌다. 탄자니아 진출 한인기업 제일엔지니어링도 후원에 동참하고 나섰다. 탄자니아에서 시작한 평화의 샘물 사업은 이제 물 부족이 심한 말라위, 남아공, 가나, 잠비아, 짐바브웨 등의 지역 한인회와 아중동한인한상총연합회의 사회공헌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평화의 샘물 사업은 10월 4일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한인회 모범 운영사례로 소개됐고 이해명 회장은 자랑스러운 한인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회장은 현재 다레살람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데 빈방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 잘되고 있다. 한인회장대회 행사장에서 만난 그는 한국에 자주 나오는 것을 꺼린다니면서 그 이유로 “한국은 모든 게 너무 편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지기 때문” 이라고 말하면서 웃음을 지어 보였다. [▶](#)

1. 지난 8월 다레살람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주후디 초등학교에서 열린 ‘평화의 샘물’ 개수식.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민주평통유럽지역회의가 후원했다.
2. 탄자니아 ‘한인 이민자 1호’ 이태조·이해명 씨 부부. 이태조(사진 오른쪽) 씨는 초대 한인회장을 지냈고 부인 이해명 씨는 현 한인회장이다.
3. 현지인과 함께한 탄자니아 한인회 추석행사.
4. 탄자니아 한인회는 한인 안전을 위해 사고가 나면 곧바로 현지 경찰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한인 기동대’를 창설했다.
5. 7월 23일 탄자니아를 방문한 이낙연 총리는 마구폴리 대통령(오른쪽)과 함께 GS 건설과 탄자니아 도로공사의 ‘샬린더 신교량’ 계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구폴리 대통령은 “한국은 가장 못살던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가 됐다. 교육과 인프라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며 “교량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한국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 중간선거 결과는 한인 정치력이 질적으로 향상됐음을 보여주는 증거”

재미동포 여성으로 최초 5선 의원이 된 **신디 류** 워싱턴 주 하원의원



11·6 미 중간선거에서 태평양 연안 워싱턴 주 하원의원 5선 고지에 오른 민주당 소속 신디 류(61·한국이름 김신희) 의원은 “이번 당선은 한인들의 정치력이 한 단계 신장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류 후보는 11월 20일 현재 4만9천310표(75.8%)를 얻어 1만5천674표(24.12%)를 차지한 공화당 디오 부크시구에즈 후보를 3만3천636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주 하원의원 5선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주 상·하원을 통틀어 재미동포 여성으로는 최초의 5선이다. 앞서 워싱턴 주 신희범 전 상원의원과 오리건 주 임용근 전 하원의원이 5선을 기록한 바 있다. 류 당선인은 또 2008년 워싱턴 주 쇼어라인 시장에 당선돼 ‘한인 여성 최초 미국 시장’이란 타이틀도 갖고 있다.

류 당선인은 “한인사회의 격려와 후원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한국의 딸로서 고국이 잘 살아야 저도 계속 잘 살 수 있다. 세계가 놀랄 발전을 이룩한 고국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36·민주당) 등 한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데 대해 “한인 정치력이 질적으로 향상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장인 그는 내년 4월께 한국에서 세계한인정치인대회를 열 것이라며 “이 대회는 현역 의원과 차세대 정치인이 교류하는 장으로, 재외동포 위상 강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1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이민했으며 워싱턴대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MBA를 수료했다. 졸업 후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보험업으로 승승장구하다 47살 늦깎이 나이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2003년 워싱턴 주 쇼어라인 시의원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지만 2년 뒤 다시 도전해 승리했고, 2008년에는 쇼어라인 시장에도 오른 의지의 여성이다. 2010년 워싱턴 주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된 뒤 이번까지 내리 5선을 달성했다.



“한·중·일 아우를 수 있는 인재 되도록 언어와 문화 교육에 매진”

재일조선족 유일의 한글학교 10년간 이끄는 **전정선** 교장

10만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일조선족 사회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유일한 주말학교가 있다. 동경 한국학교에 동지를 둔 도쿄샘물학교로 11월 11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초창기부터 학교를 이끌어온 전정선(62) 교장은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이 이중언어 구사와 이중정체성인 점에 맞춰 학생들이 한·중·일을 아우를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언어와 문화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며 교육 방침을 밝혔다.

전 교장이 주말학교를 건립하게 된 것은 2008년 재일조선족여성회를 만들면서부터다. 대부분 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와 정착한 조선족 여성들은 2세의 육아 문제와 정체성 유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아이들이 한국어·중국어 어느 쪽도 못 해 연변에 있는 조부모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

은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에 대한 관심도 적은 것이 안타까웠죠. 심지어는 학교에서 일본인 행세를 하는 아이들도 생겨 이대로 둘 수 없다 싶어 여성회가 나서서 정체성을 심어주는 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도교샘물학교는 교사 12명이 유치·초등 4개 반에서 217명의 학생을 가르친다. 학부모의 자원봉사 등으로 유지되는 학교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지역문화센터를 전전하며 수업을 진행해오다가 올 초에 동경한국학교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도교 신주쿠에 소재한 이 학교는 재외국민을 위한 정규학교로 샘물학교에 교실을 제공해주고 있다. 학교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국어와 조선족 역사를 가르치고 매년 한국어 말하기대회, 일본내 한일 교류 유적 탐방, 시화전 등

다양한 문화 활동도 벌인다. 2014년부터 매년 국제홍백가 요제에 샘물학교 어린이합창단을 내보내 지금까지 한차례 빼고는 모두 입상하는 솜씨를 뽐내기도 했다.

전 교장은 “지금까지 이 학교를 거쳐 간 재일조선족 2세대들은 800여 명에 이른다”며 “아직 사회 진출자는 거의 없지만, 대학 진학 후 한국이나 중국으로 유학하려는 학생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20개국에서 100명씩, 총 2천명 고국 청년 채용을 추진하겠다”

심상만 신임 아시아한인총연·아시아한상총연 회장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 아시아 각국과 모국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일에 한인사회가 앞장서겠다.” 11월 1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아시아총연)와 아시아한상총연합회(아시아한상총연)의 공동 임시총회에서 3년간 양 단체를 이끌 수장으로 선출된 심상만(67) 회장은 “아시아 20개국 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모국과 동반성장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가장 우선하여 추진할 과제에 대해 “단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아시아총연을 외교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겠다. 아울러 6개월 이내에 서울사무소도 개설할 계획이다. 아시아 지역 한인회 임원이나 한상들이 모국 방문 시 정보도 교환하고 쉼터도 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한인회 간 소통은 물론이고 모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홈페이지도 개설해 어떤 일을 하는지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관련해 “아시아한상총연에 가입한 한상이 현재 100여 명인데 300여 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통해 국내 청년의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개

국에서 100명씩 총 2천 명 채용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자문하는 전문가도 국가별로 3~5명씩 지정해 운용하는 한편, 현지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비즈니스를 펼쳐온 기업가들로 구성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사례집도 발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한글학교 지원과 차세대의 모국 방문 사업 추진을 통해 현지화하는 차세대의 정체성 육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1996년 현대자동차의 인도 첸나이공장 설립 때 1차 협력사로 인도에 진출해 연 매출 400억 원대 기업인 KOTEC을 이끌고 있다. 인도 첸나이한인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해부터 인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한·인도 교류 상징으로 거듭난 2천 년 전 가락국 김수로왕妃 ‘허왕후’

모디 총리, 기념공원 행사에 고위급 파견 요청… 韓, 김정숙 여사 방문 ‘화답’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월 6일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주 아요디아에서 열린 허왕후 기념공원 기공식에서 표지석을 제막하고 있다. 오른쪽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요기 아디티아나트 주 총리.

고대 가락국 김수로왕의 비(妃) 허왕후가 한국·인도 교류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다. 신남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을 통해 관계 업그레이드를 모색하는 한국과 인도가 2천 년 전 인물인 허왕후를 양국 우호의 상징적 접점으로 삼는 분위기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1월 5일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한 면담에서 “허왕후 기념공원은 2천 년 간 이어온 양국 관계가 복원되고 전 세계에 그 깊은 관계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차세대에도 양국 관계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다음날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州) 아요디아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하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앞서 모디 총리는 7월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디왈리 축제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화답하면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결정했다.

인도 정부는 허왕후 기념공원 사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애초 신규 기념공원 부지는 허왕후 기념비가 자리 잡고 있던 기존 2천430㎡ 규모의 작은 공원 부지에서 400~

500m 떨어진 곳에 마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결정되자 신규 공원은 기존 부지 바로 옆 훨씬 나은 입지로 불과 며칠 만에 재조정됐다. 서류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로 유명한 인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신규 부지 규모도 애초 계획된 1만㎡에서 1만2천776㎡로 크게 늘었다.

‘삼국유사-가락국기’에 따르면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은 서기 48년 16세의 나이에 인도에서 바닷길을 건너가 김해 김 씨의 시조인 가락국 김수로왕과 결혼했다. 김수로왕과 허황후는 슬하에 10남 2녀를 뒀고 아들 두 명은 어머니의 성을 이어받았다. 이에 허황후는 김해 허 씨의 시조가 됐다. 아유타국 위치는 지금의 아요디아 일대로 추정된다고 국내 일부 학자들은 주장한다.

다만, 역사적 고증 작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설화 속 인물’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학계의 우려도 있다. 이광수 부산외대 교수는 그의 저서 ‘인도에서 온 허왕후, 그 만들어진 신화’에서 허왕후가 인도에서 건너왔다는 이야기는 후대에서 창조된 허구라며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 시대에 김수로의 탄생 신화를 더욱 극적으로 꾸미기 위해 허왕후 이야기에 인도를 의미하는 아유타국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학자는 허왕후가 인도가 아니라 중국이나 태국 등 동남아에서 건너왔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기념공원 착공과 허왕후의 실존 여부 증명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기존 역사 기록을 토대로 인도와 교류할 수 있는 상징적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자는 것이다.

김 여사와 함께 인도를 방문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삼국유사라는 우리나라 문헌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안을 토대로 양국이 교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이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은 후대 역사학자들이 맡아서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

무만두, 콩국수... 한식 불모지 伊 사로잡다 음식전문 기자들 상대로 한식 쿠킹 쇼

양국 스타 요리사, 한식 식재료와 조리법 활용해 코스요리 선보여

11월 29일 오후 고대 로마 시대 유적 등 시내에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로마 한복판의 고급 백화점 '리나센테'의 꼭대기층 식당에 이탈리아 유력 언론의 음식 전문기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식의 불모지로 꼽히던 이탈리아에서 최근 한식의 인기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한식쿠킹쇼'가 열린 것.

'2018 로마 한국주간'을 맞아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손을 잡고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공영방송 RAI, ANSA통신 등 현지 주요 언론의 음식 전문기자 20여 명이 초청돼 한식의 참모습을 직접 체험했다.

현지의 대표적인 칵테일 재료인 캄파리와 막걸리가 오묘하게 섞인 분홍빛깔 칵테일 등 식전주로 참석자들이 입맛을 다시자, 양국의 스타 요리사가 한국과 이탈리아의 식재료와 조리법이 어우러진 6가지 코스요리를 속속 선보여 참가자들의 오감을 사로잡았다.

한국 측에서는 미술랭 별 두 개를 받은 서울의 한식당 '권숙수'의 권우중 총괄요리사, 이탈리아 측에서는 미술랭 별 하나 식당 '알로로'의 총괄요리사 디 자친토 리카르도 셰프가 양국을 대표해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음식을 만들고, 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권 셰프는 전채요리로는 400년 전통의 무만두, 주요리로는 알바(Alba)산 송로버섯을 뿌린 콩국수, 후식으로는 바질식혜와 잣, 밤, 꿀, 찹쌀 등으로 맛을 낸 떡 '잣구리' 등 담백하면



권우중 셰프



11월 2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한식 쿠킹쇼에서 권우중 셰프(왼쪽에서 네 번째)와 디 자친토 리카르도 셰프(가운데), 이탈리아 기자 등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도 고급스러운 맛이 돋보이는 음식을 내놓았다. 콩국수에 대표적인 이탈리아 식재료인 송로버섯을 가미함으로써 향과 풍미가 한층 깊어졌고, 식혜에 이탈리아의 대표적 허브인 바질이 첨가됨으로써 맛과 색이 더 풍성해졌다.

리카르도 셰프는 전채요리로 참기름 카르보나라, 본식으로 인삼과 생강소스 소고기 요리, 후식으로 굴티라미수를 선보였다. 전형적인 이탈리아 요리에 참기름, 생강 등 한식에 주로 쓰이는 양념을 가미해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잘 맞았다.

한국대사관의 최관섭 공사는 환영사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좋은 식재료가 많이 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문화가 발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탈리아 음식 못지않게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한식을 맛봄으로써 한국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지 기자들은 특히 권우중 셰프의 음식에 흥미를 표현했다. RAI의 마시모 체를포니 기사는 "권우중 셰프가 전채음식으로 준비한 무만두가 맛과 향, 식감 모든 균형이 조화로워 가장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일간 라 레푸블리카의 아리안나 코리 기사는 "이탈리아는 겨울에 파스타를 차게 해서 먹지 않기 때문에 (찬)콩국수를 처음 입에 넣고 약간 당황했지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TG1의 브루노 감바코르타 기사는 "섬세하고, 달콤한 바질식혜가 너무 맛있었고, 진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콩국수 국물의 특이한 맛에 매료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윤경 연합뉴스 로마 특파원

‘美 최초 한인타운’ 안창호 선생의 ‘파차파 캠프’ 재조명한 책 출간 장태한 UC리버사이드대 교수 펴내… “독립운동 기틀 닦은 곳”

미주 한인 이민사에서 한인타운의 효시로 평가되는 도산 안창호(1878~1938) 선생의 ‘파차파 캠프’(Pachappa Camp)를 재조명하는 책이 나왔다. 장태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학교(UC리버사이드) 교수는 ‘파차파 캠프,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성안당)을 펴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 책은 1904년 샌프란시스코에 온 도산이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동쪽 소도시 리버사이드에 정착한 과정을 그렸다. 안창호 선생은 그곳에서 최초의 한인커뮤니티인 파차파 캠프를 건립했다.

초기 파차파 캠프에는 한인 50여 명이 거주하며 오렌지 농장에 인부로 고용돼 일했다고 한다. 도산은 파차파 공동체를 일궈내며 신민회와 흥사단 설립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11년 대한국민회 북미 총회가 리버사이드에서 열렸다. (사진·남가주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제공)

도산은 1905년 공립협회를 세웠고 1907년 서울에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가 태동한 곳도 파차파 캠프였다. 1911년 파차파 캠프에서 대한국민회 북미 지방 총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도산은 이곳에서 흥사단 설립 구상을 했다고 전해진다.

책 표지에는 리버사이드 시측이 파차파 캠프를 사적지로 지정하면서 세운 현판이 사진으로 실렸다.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 교수는 각

종 사료를 발굴해 리버사이드 시 의회의 사적지(시 문화관심지) 지정을 끌어내는 데 공헌했다. 책 출간은 캘리포니아 주가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제정 선포한 것에 맞춰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우리는 하나… 일본 오사카서 34번째 ‘원코리아페스티벌’ 개최 재일동포·현지인 700여 명 참가…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에 일조”

남과 북, 재일동포사회가 하나가 되자는 취지의 ‘원코리아페스티벌’ 행사가 11월 11일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에 있는 미유키모리 초등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공익재단법인 원코리아페스티벌 실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4번째로 열린 축제에는 재일동포와 현지인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며 막을 열었다. 이어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판문점 선언의 의의와 남북 정상회담 참가 소감’을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통일의 물꼬를 트겠다는 일념 하나로 34년간 중단없이 원코리아페스티벌을 열어온 것은 아주 의미있고 대단한 일”이라며 “이 같은 역사가 최근의 한반도 평화정착 분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1월 11일 일본 원코리아페스티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원코리아페스티벌 실행위원회 제공)

위기 조성에도 일조해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희정 원코리아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일본인들과 함께 만들어온 원코리아페스티벌은 남과 북의 구분 없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의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국적, 국경을 넘어 ‘원코리아’, ‘원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개막 행사 전날에는 오사카 이쿠노쿠에 있는 재일한국인기독교센터(KCC)에서 ‘화해와 통일로 가는 남북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원코리아페스티벌은 남과 북, 재일동포 사회가 하나가 되고,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1984년부터 정갑수 대표를 비롯해 재일동포 사회단체들이 펼쳐온 행사다.

26년간 독일서 고고학 연구하며 시 써온 故 허수경 시인 작품 재출간 이방인 삶의 고독과 쓸쓸함의 정서 시에 담아내… 독일작품 번역에도 힘써

지난 10월 3일 세상을 떠난 재독동포 허수경 시인의 생전 작품들이 다시 출간됐다. 출판사 문학동네는 고인의 49재에 맞춰 첫 장편소설 '모래도시'(1996)를 22년 만에 재출간했다. 출판사 '난다'도 산문집 '모래도시를 찾아서'를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펴냈다.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는 시인이 마지막까지 붙든 책이라고 한다. 오리엔트 페허 도시 바빌론을 중심으로 고대 건축물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

'고고학 에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과 '사라짐'을 붙들고 있다. 시를 통해 인간 내면 깊숙한 곳의 허기와 슬픔, 그리움을 노래한 허 시인은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독일로 건너가 꾸준히 시를 쓴 故(故) 허수경 시인. 2011년 12월 13일 신작 장편소설 '박학'의 출간에 맞춰 방한했을 당시의 모습.

1964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경상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상경해 방송국 스크립터 등으로 일하다 1987년 '실천문학'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이후 시집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와 '혼자 가는 먼 집'을 낸 뒤 1992년 돌연 독일로 건너갔다.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고대 근동 고고학을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와중에도 꾸준히 시를 써 총 6권의 시집을 냈다. 또 독일에서 오랫동안 이방인으로 지낸 삶은 그의 시에 고독과 쓸쓸함의 정서를 짙게 드리우게 했으며, 시간의 지층을 탐사하는 고고학 연구 이력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독보적인 시 세계를 만들어냈다. 고인은 시 외에 소설과 동화, 산문 등 다양한 글을 썼으며 독일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했다.

내년 여름부터 英 방문 쉬워진다… 한국인 입국심사시간 대폭 줄어 英 내무부, 한국 등 7개국 전자여권 게이트 허용키로

영국 내무부는 내년 여름부터 한국과 싱가포르 국민에게 전자여권 게이트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12월 3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해 입국자의 전자여권에 등록된 이미지와 대조한 뒤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경우 별도 출입국관리 직원을 통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영국은 10월 말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차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5개국을 전자여권 게이트 이용 대상에 넣었다.

당시 발표에서는 한국이 제외됐지만, 그동안 주영 한국대사관 등이 물밑 작업을 펼쳐 이번에 새롭게 전자여권 게이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위해 대기 중인 이용객들

EU 탈퇴) 이후 주요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영국 입장에서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다 이미 일본인 입국자를 추월한 한국인을 제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인 중에서도 영국 영주권 또는 비자 소지자, 영국을 자주 오가는 이들에 한해 연간 70파운드(한화 약 9만9천 원)를 내면 예외적으로 전자여권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기는 했지만, 비용 부담에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이용객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영국에 들어오는 한국인 모두가 전자여권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한국인 40만 명을 포함해 모두 7개국 650만 명규모가 빠른 입국 심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미동포사회, 내년 3·1운동 100주년 맞아 '만세 재연 행사' 갖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연합기념식도 개최

재미동포 단체들이 내년에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LA와 뉴욕에서 대규모 만세 재연 행사를 펼친다. LA 지역에선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을 주축으로 한인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미주 3·1 여성동지회, 광복회미서남부지회, 흥사단 지부, 남가주교회협의회, 미주한인재단, 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등이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3·1운동 100주년 합동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100년 맞이 축하 연합음악회(2019년 2월 23일)를 시작으로 범 동포연합 기념식과 만세 재연 행진(3월 1일),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문집을 발행(3월 16일), 차세대 초



LA지역 단체장들이 모여 내년 3·1운동 100주년 합동 행사를 논의하고 있다.

청 토크쇼(3월 30일) 등의 행사를 마련한다. 또 3월 한 달간 캘리포니아 지역을 순회하며 3·1운동 관련 사진을 전시하고 미주지역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도 탐방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연합기념식도 개최하기로 했다.

뉴욕한인회는 내년 3·1절에 맨해튼 한복판에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재연한다. 행사에는 한인 청소년들이 태극기와 대형 현수막을 들고 참가할

예정이다. 배국희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은 11월 13일 "모두 한 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조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만들 것"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후손에 길이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워싱턴 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속도… 현지 지자체 5억 원 지원 “美 정치 1번지에 소수민족 센터 건립은 유대인 이어 두번째”

미국 워싱턴 한인들의 숙원사업인 '코리안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현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센터 건립추진위원회 황원균 간사(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부의장)는 10월 4일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가 지난달 25일 50만 달러(약 5억6천300만 원)를 지원키로 했다"며 "지원금은 곧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운티 지원금과 우리 손으로 모은 152만 달러, 내년 초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30만 달러를 합치면 센터가 들어설 만한 빌딩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5층 규모의 건물을 사기 위해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해당 건물을 매입해 1층은 주차장, 2~5층은 사무실과 강당·세미나실·한글 교육을 위한 교실 등으로 리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코리안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워싱턴 한인사회에 50만 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모델링할 계획이다. 센터는 강연회와 세미나, 한국문화 홍보, 양국 정치인들 간 만남과 회의 장소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차세대 정치력 신장을 위한 터전과 미국인과 타인종 간 교류의 장으로도 쓰일 예정이다. 구매 외에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270만 달러는 동포사회 모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센터가 한국 상품의 홍보와 광고

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인 만큼 한국 기업의 후원도 기대하고 있다.

황 간사는 "미국 정치 1번지인 워싱턴에 한인커뮤니티센터가 생기는 것은 유대인에 이어 소수민족으로는 두 번째"라며 "이는 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의 정치·경제력이 신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에 김요진 브라질한인회장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는 제7대 회장에 김요진(55·사진) 브라질한인회장이 뽑혔다고 11월 16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를 이끈다. 1978년 태권도 사범으로 브라질에 이민한 김 회장은 브라질 태권도 국가대표 코치와 태권도협회 위원장, 브라질 한인체육회장 등을 지냈다. 브라질 판 태권도 책자 4권을 발간했고, 처음으로 태권도 2인조 경기를 개발해 보급했다.



중국한국인회 신임 회장에 박원우 씨

80만 재중동포를 대변하는 중국한국인회 제 10대 회장에 박원우 씨가 취임했다. 박 신임 회장은 금호그룹과 한솔그룹 회장 비서실을 거쳐 한중합작기업인 탁립수마재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박 회장은 12월 4일 베이징(北京) 누오 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국한국인회 10대 축제일을 선정하고 중국한국인회의 날을 제정하겠다”면서 “중국 한인 청년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권익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美 델러스서 코리안 페스티벌... 500인분 '평화 비빔밥' 장관

미국 텍사스 주 델러스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이 펼쳐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주 델러스 출장소와 델러스한인회에 따르면 11월 10~11일 델러스의 캐롤튼 아시안 타운센터에서 열린 2018 코리안 페스티벌에는 역대 최대인 10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을 염원했던 이 축제는 올해는 지름 약 2.5m 크기의 대형 그릇에 고추장으로 '평화'라고 쓴 비빔밥을 참가자 500여 명이 나눠 먹으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호주 멜버른에 한국전참전비 착공... 내년 4월 완공

호주 멜버른 한국 분관(총영사 김성호)은 마리부농시 퀘르 파크에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세우기로 하고 11월 1일 착공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 총영사를 비롯해 참전비건립 추진위원회 최종곤 위원장, 마리부농시 콤 램 시장, PCG(Project Control Group)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PCG는 주멜버른 한국 분관, 빅토리아 주정부, 마리부농시, 디자인과 건축을 담당하는 스윈번 공대, 참전비추진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美 화랑청소년재단, 연방마약단속국과 마약 퇴치 포럼

미국 화랑청소년재단(총재 박윤숙)은 미국 법무부, 연방마약 단속국(DEA)과 함께 청소년 마약 남용 문제점을 홍보하고 이를 퇴치하는 포럼을 열었다. 11월 11일 LA에 있는 펜퍼시픽 액티비티센터에서 진행된 'DEA 톨 아카데미'에는 재미동포 청소년 70명이 참가했고, 이들의 학부모도 참관했다. 학생들은 마약실태 등에 대해 배우고 최근 만연하는 전자담배 속 마리화나와 헤로인 흡입에 대한 심각성과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홍콩총영사관, 취업·창업 관련 설명회 개최

주홍콩총영사관은 11월 21일 총영사관 강당에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를 초청해 유학생과 기업, 금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취업·창업 관련 법률·세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원진 주홍콩총영사는 “홍콩에는 1천500여 개 한국 기업과 20여 개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많은 홍콩 유학생과 국내 대학 졸업생들이 홍콩 취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신은 영웅”... 남수단 교과서에 수록된 ‘울지마 톤즈’ 故 이태석 신부

아프리카 남수단(South Sudan)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선종한 이태석(1962~2010) 신부의 삶이 내년부터 교과서를 통해 남수단 학생들을 찾아간다. 남수단 교육부는 지난 9월 이태석 신부의 삶과 업적을 담은 교과서를 발간했고 이 교과서들을 내년 2월 새 학기에 맞춰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남수단 한인회가 11월 15일 밝혔다. 이태석 신부를 조명한 내용은 남수단 고등학교 시민생활 교과서에 2페이지에 걸쳐 실렸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3페이지에 걸쳐 다뤘다. 두 교과서는 이 신부가 태어났을 때부터 학창 시절, 남수단에 오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 고인이 청진기를 들고 남수단 어린이들을 진찰하는 장면 등 사진 여러 장을 수록했다. 암 투병 중에도 병상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던 모습도 교과서에서 볼 수 있다.

현지 언론은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이 교과서에 소개되기는 이 신부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신부가 베푼 사랑을 남수단 정부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인종·종교적 분쟁이 남수단인 약 200만 명을 숨지게 했지만, 그는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이들의 고통도 덜어줬다”며 이 신부가 가톨릭 신자,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등을 가리지 않고 치료했다고 칭찬했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이 신부가 남수단의 열악한 지역인 톤즈 주민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가 남수단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영웅(hero)으로 남아있다고 적었다. 남수단 교육부는 2015년부터 이 신부를 교과서에 수록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태석 신부는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사제로 살겠다고 결심해 신학교를 마친 뒤 아프리카 선교를 지원했다. 이후 2001년 극심한 내전과 빈곤에 시달리던 남수단 톤즈 마을에 정착했다. 이곳에서 움막 진료실을 만들어 밤낮으로 환자를 돌봤다. 남수단 교과서는 이 작은 진료실에서 하루



남수단에서 헌신적인 희생봉사 활동을 펼쳤던 故 이태석 신부. 왼쪽은 남수단 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이태석 신부. (남수단 한인회 제공)



내년 2월 학교에 배포 예정...
고인의 헌신적 삶 소개

에 약 30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신부는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35인조 브라스밴드를 만들기도 했다.

톤즈의 유일한 의사였던 이 신부는 현지에서 ‘쥘리’(John Lee)라는 친근한 애칭으로 불렸다. 그러나 2008년 휴가차 한국에 들렀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고 2010년 48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신부의 삶은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살바 키르 남수단 대통령은 11월 20일 대통령궁에서 이태석 신부를 위한 대통령 훈장과 훈장 증명서를 김기춘 남수단 이태석재단 이사에게 전달했다. 남수단 정부가 외국인에게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기는 처음이다. 키르 대통령은 훈장 추서에 대해 “늦었지만 늦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며 “이 신부의 모친이 한국에서 살아계신다고 들었다. 이 신부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남겼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프랑스서 ‘한지’ 이용한 문화재 복원 세계 최고 전문가 꿈꾸는 김민중 씨

10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부인 김정숙 여사가 파리 루브르박물관을 방문해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주의 깊게 관람한 문화재는 바로 우리 한지가 복원작업에 사용된 18세기 고가구인 ‘막시밀리안 2세의 책상’이다. 루브르가 1951년부터 소장하고 있는 바이에른 왕국 시기의 이 고가구는 한국 전통 한지로 복원돼 한·불간 문화교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문화재로 평가된다.

전주시는 2016년 5월 문화재 복원용 전주 한지 샘플을 루브르박물관에 보냈고, 루브르의 세계적 수준의 문화재 복원팀은 한지의 우수성을 확인하고서 1년간의 작업 끝에 막시밀리안 2세 책상의 복원에 성공했다. 전주 한지가 사용된 부분은 가구의 손상을 피하려고 중앙 서랍의 자물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북이 등껍질의 내피가 된 곳이다. 당시 한지를 이용한 복원에 참여했던 프랑스 문화부 소속 프레드릭 르블랑 복원사는 “전주 한지는 접착력과 가벼움, 강도, 치수 안정성, 상대적 투명성 면에서 우수해 섬세한 복원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루브르에서는 목재 문화재의 복원에 주로 일본 화지(和紙)를 이용했는데, 이번 복원은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지가 문화재 복원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전주시와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프랑스에서 이 분야에 일생을 걸고 개척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 청년의 도전 정신이 한몫을 했다. 파리 1대학에서 문화재보존복원학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딴 뒤 국군 유해발굴감식단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민중(32) 씨가 그 주인공이다. 김 씨는 군 복무 전에 루브르의 문화재 복원팀에서 1년 반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의 실력을 흡수하면서 전통 한지의 복원 소재로서의 가능성에 눈을 떴다. 군 복무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택해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지금은 파



지난해 11월 24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서 문화재 복원 전문가 김민중 씨가 아리안 들라사벨 루브르 보존복원 연구소장과 함께 전통 한지를 이용한 문화재 보존·복원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리에서 박사과정을 하며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와 연구를 수행 중인 김 씨는 작년 겨울에는 루브르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지를 주제로 한 콘퍼런스도 직접 주최했다. 이 콘퍼런스에는 루브르 박물관장을 비롯해 프랑스의 복원 전문가들도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열네 살에 프랑스로 유학을 온 김 씨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외규장각 의궤를 프랑스에서 처음 발견한 고(故) 박병선 박사의 추천으로 한지의 매력을 처음 알게 됐고, 이후 문화재 복원을 평생의 업으로 삼게 됐다. “다빈치나 라파엘로의 그림을 복원하는데 우리 한지가 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화재는 시간이 갈수록 뜯겨나가기 마련인데 복원을 위해 덧붙여진

한지는 그 문화재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멋지지 않습니까?” 재벌 동포 김 씨는 오늘도 유럽 문화유산의 본산인 파리 한복판에서 한지를 이용한 문화재 복원의 세계 최고 전문가를 꿈꾸며 매진하고 있다. [▶](#)

“
박병선 박사 통해
한지 매력 알게 된 후
문화재 복원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
”

재단 초청장학생 200여 명 제주서 역사문화 체험



재외동포재단은 11월 16~18일 제주도에서 '2018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역사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재단본부를 방문한 참가자들(사진 왼쪽).

재외동포재단이 개최한 '2018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이 11월 16일부터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48개국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장학생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행사 첫째날 제주로 모인 초청장학생들은 제주 4·3평화공원에서 환영식에 이어, '제주, 신화에서 역사로'라는 주제특강, 지역별 네트워크 회의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시간 등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전쟁과 일제 강점기의 상흔이 남아 있는 알뜨르 비행장 및 지하버거 등을 방문해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눈으로 확인했다. 또, 감귤 체험장에서 직접 감귤을 따며 제주 지역 농장 체험에 나서기도 했다.

마지막 날에는 성읍 민속마을, 성산 일출봉, 아끈다랑쉬 오름 등 제주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역사문화 체험을 마쳤다.

한우성 재단이사장은 "재외동포 장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거주국과 모국간의 상생발전을 생각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선후배간의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모국에서의 학업을 충실히 마쳐 미래 재외동포사회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재외동포 장학생을 선발, 국내 대학에서 학사 및 석·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항공료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사업 가운데서도 중국, CIS 지역 등 낙후된 지역 우수 동포 학생들의 고등교육 지원은 동포사회 역량을 키우고 고급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7기 사전 인턴십



재단은 한상기업에 파견 보낼 2018년도 청년인턴십 7기에 대한 사전교육을 11월 12~16일 실시했다.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한상기업에 파견할 2018년도 청년인턴십 7기에 대한 사전교육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했다.

한상기업 면접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12월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미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의 한상기업으로 파견돼 6개월간 인턴십을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사전교육으로 재외동포사회와 한상에 대한 이해, 직무·소양, 해외 안전 수칙, 글로벌 매너 등에 대해 소개했다. 교육 기간에 이상명(필리핀), 김덕기(홍콩) 한상의 '글로벌 CEO 특강'을 들었다.

또한 인턴십에 참여해서 우수하게 과정을 마친 최재연(호주, 3기), 이성재(미국, 4기), 신기평(태국, 5기), 이난영(베트남, 5기) 씨 등 5명의 선배 참가자들이 한상기업 근무 소감과 해외 진출 노하우 등을 소개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국내 청년들의 한상을 통한 해외진출은 우리 경제 지평을 넓이는 중요한 발판이라 충실한 사전교육이 되도록 힘썼다"며 "해외 취업이 성공하도록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바른 말 고운 말

빌다 빌리다

“그동안 저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예문은 그동안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 왔지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지나다가 감사의 말을 전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전에는 남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하고 쓸 때, 또는 남의 도움을 입을 때 이 ‘빌다’라는 말을 썼었지만 바뀐 표준어 규정에서는 이럴 때 모두 ‘빌다’를 쓰지 않고 ‘빌리다’를 쓰도록 정했습니다.

‘빌다’의 경우는 ‘밥을 빌려 다니다’, ‘당신의 행복을 빌립니다’와 같이 남의 물건을 거저 달라고 사정할 때나 소원대로 되도록 기도할 때만 사용합니다. 반면에 ‘빌리다’의 경우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준다’ 또는 ‘우리 할머니 말씀을 빌리자면 밥이 보약 이랍니다’와 같이, 남의 말이나 문장을 인용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앞의 예문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부분과 부문

시상식에서 진행을 맡은 사회자 중에는 ‘최우수 연기자 부분’이라든가 ‘신인 가수 부분’과 같이 ‘부분(部分)’이라는 표현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에 칠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 공간의 위쪽은 ‘윗부분’이라고 하고 아래쪽은 ‘아랫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분’과 비슷한 표현으로 ‘부문(部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문’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종류에 따라 나누어 놓은 갈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신춘문에 당선 작품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여러 문학예술에 관한 작품을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으로 나누어서 상을 주는데, 이때 ‘시 부문, 소설 부문, 수필 부문, 희곡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상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류에 따라 갈라 놓은 부류를 뜻하는 말은 ‘부분’이 아니라 ‘부문’이기 때문에 ‘최우수 연기자 부문’이나 ‘신인 가수 부문’으로 고쳐 말해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2018년 11월호 정답

맹	모	삼	천	성	인	군	자
목			하	냥			신
적			무	지	개		감
		면	적	비	행	기	
서	울		이	방			비
	릉		순	불			빔
식	도	꽃	신	명			밥
목				영	순		
일	기	예	보	세	중	대	왕

▶ 오른쪽 방향 열쇠

-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으로 불리는 한반도의 명산
- 두부가 될 물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
- 여름에 피는 국화와 한해살이 풀꽃. 동요에 ‘올해도 과○이 피었습니다’라는 노랫말이 있음
-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심정
- 위기에 처한 사람의 목숨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일. 인명○○
- 철분을 함유한 청록색 또는 담황색의 유약을 입힌 자기. 고려시대에 꽃피웠다
-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
-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 우리가 살고 있는 푸른 행성
-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되었다는 돌
- 못을 박고 빼는 연장
- 연주·음악 등 최초로 상연되는 것
- 오이를 끓였다가 식힌 소금물에 담가 익힌 반찬
- 기운도 다하고 맥도 다함. 기운과 힘이 다한 상태
-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발명한 아동잡지 이름
- 각종 물건의 품질을 평가하는 모임

▶ 아래쪽 방향 열쇠

- 1997년 IMF 경제 위기 때 국제 보상 운동을 본받자는 뜻에서 이 운동이 일어났다.
- 개·콩·잣 등을 물엿으로 굳힌 한식 과자
- 지구를 분데 만든 모형. 동그스통 위에 지구 표면의 경선과 위선, 지명 따위를 그려 넣었다
- 이른 봄 꽃필 무렵의 추위
- 가난한 사람의 반대. 돈이 많고 살림이 넉넉한 사람
- 매사에 엇나가는 짓을 하는 사람의 별명
- 개인·단체 등의 주의·정책 등에 찬동하여 지지한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냄. 지○도
- 봄 여름에 피는 꽃. 꽃말이 ‘날 잊지 마세요’이다
-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진 물체
- 덧붙여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을 늘어놓음. ○○ 설명
- 거지가 동냥 등을 할 때 가게 등의 앞으로 다니며 부르는 타령
- 남자에게 있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여자형제를 일컫는 말
- 조선시대 가생으로 박연폭포, 서경덕과 함께 송도 삼절로 불린다
- 어린이에게 더러운 것이라고 일러 주는 말
- 포유동물 중 가장 키가 커서 머리 끝까지의 높이가 6m나 된다.
- 진귀한 물품

‘평화의 바람’ 답사기

함현강(미국) 동포문학상 중고등부문 우수상

사춘기의 성장통으로 좌충우돌하며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나만의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연히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여름 방학에 주최하는 ‘평화의 바람-국토순례’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다.

한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않은 나.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나는 국토순례를 통해 한국과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국토순례의 첫발을 내디뎠다.

첫날, 한국인을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중국 등 갈등으로 고통을 겪었거나 현재 갈등이 진행 중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형, 누나들과 강원도 고성군 거진에 위치한 거진 성당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얼핏 보기엔 내가 사는 중국 동북 지역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얼마 전 학교에서 길림성 박물관 견학을 갔을 때 고구려 광개토태왕비와 장군총의 전사물들을 보며 고구려를 우리의 역사 일부로 알고 있던 나와 중국의 변방 역사로 주장하는 반 친구들과 하마터면 몸싸움까지 할 뻔했던 기억과 더불어 하나라도 내 조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생각에 눈 한번 붙이지 않고 창밖을 내다봤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미사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한 후 통일전망대를 향해 출발했다. 통일전망대를 향해 올라가는 중간 중간 내려다보이는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 그 동해 바다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봉우리 하나가 금강산 자락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분단국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이라며 흥분을 하는 우리 조의 한 형을 보며 내가 가질 수 없었던 한국인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박물관에 들러 한국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교과서를 통해서 혹은 한국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지는 못했지만 나도 조금씩 한국을 알아간다는 것을 깨달으

며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 한국! 나의 나라, 나의 조국, 근래 중국과의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 나는 한국의 물리적인 크기, 국가 경쟁력, 무역 흑자 등을 고민하며 통일 한국이 되면 중국과 조금은 대등하게 되지 않을까를 생각했던 적이 있다.

삼 일째 되는 날 거진 성당에서 짐을 꾸려 다음 행선지인 두타연에 도착했다.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어 원시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두타연에서 12km 행군을 했다. 분단, 이산가족 등 슬픈 한국 현대사가 자연 그대로를 지켜주었다고 생각하니 풀 한포기도 그냥 보이지 않았다.

행군하며 지뢰 표지판을 심심찮게 보았다. 낮은 철조망은 위협이 되지 않아도 지뢰 표지판은 아직 한반도에 남아 있는 휴전국의 의미를 실감나게 해주었다. 진한 녹음에 취했다가도 수풀 속에 버려진 포탄 껍질과 낮은 고사목에 걸린 녹슨 철모를 보며 전쟁의 비극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발전된 서울의 모습과 대조적인 이곳의 정경이 한국의 지인들이 중국을 경시하는 말에 한 마디 대꾸도 못하고,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이 얼마나 약소국인지 떠들어 댈 때 눈치만 보고 있던 내 모습과 닮게 다가오는 것은 왜일까? 한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민통선 지역이 자연스러운 생활 공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발길을 을지전망대로 향했다.

나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막바지에 강제로 동원된 인민군으로 남한에 내려와 공산주의가 싫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한에서 평생 통일만을 기원하다 돌아가셨다.

어린 나를 보며 북한에 남겨두고 온 어린 아들을 떠올렸다는 할아버지는 손수 쓰신 전쟁 기록물을 우리 가족에게 남겨 주셨다. 자세히 적힌 당시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헤아려졌었다. 이러한 이유로 난 이 곳 민통선 지역을 걸으며 얼마나 많은 실망민들이 통일을 원하는지 그리고 휴전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인민군 포로로 이북에 처자식을 남기고 오신 분이요 할머니는 남한군 병사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돌아가신 전 남편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이 두 분이 휴전되고 이 십 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 성당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 형제분들을 낳아 기르셔서 우리 가족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 방문시 두 분과의 용산전쟁기념관 여행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전사 통지서를 받아든 채 울고 있는 모형 전시물 앞에서 할머니는 오열하셨고 할아버지는 다른 전시물 앞에서 눈물을 거두시지 못하셨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나는 항상 한국의 통일을 생각해왔는지 모르겠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내가 사는 지역을 만주벌판으로 부르셨고 육안으로 북녘 땅이 보인다는 애기봉에 날 데려가셨다.

민통선에서의 행군은 과거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들려주신 한국의 근현대사 속으로 나를 자꾸만 인도해갔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유독 손자 사랑이 많으셨던 분으로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시고 끝내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직도 전쟁이 무서워 북한 관련 뉴스만 보시면 전화해 우리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할머니가 나를 이 평화의바람 국제 청년 평화순례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니 현재 내가 마주하는 한국의 모습이 그냥 자연의 풍경으로만 다가오지 않았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국에서 살아가는 내 사촌들에게 찾아 볼 수 없는 이런 고민들이 날 더욱 한국적이고 한국을 사랑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일까?

순례 육일째 되는 날 파주 울곡 습지로의 여행은 나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었다. 난 사실 한국이 중국과의 역사에서 늘 당하기만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엄청난 문화유산을 지닌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만이 가진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왔다.

임진강 주변에 위치한 파주 울곡 습지는 이런 나에게 한국의 모습을 다시 정의할 기회를 주었다. 옛 농기구가 있는 초가집에서, 들녘에서 풀을 뜯는 소의 풍경에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정자에서, 뽕뽕뽕하고 익살스럽게 세워진 장승에서,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솟대와 높게 쌓아 올린 돌탑에서 한국 옛 농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웅장하지 않게 소박한 모습을 통해 자연을 거스르는 위대함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진 한국인의 생활을 보았다. 이번 평화순례를 통해 나는 다시 한 번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며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용기와 포부를 얻을 수 있었다. **장**



편육과 함께 즐기면 더 좋은 사계절 음식, 여주 천서리막국수

춘천막국수와 더불어 ‘막국수 양대 산맥’ ...
독특한 맛과 향으로 미식가 유혹



막국수는 메밀을 주원료로 하는 서민음식이다. 냉면 등 메밀 음식이 대개 그렇듯 막국수도 겨울철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나 요즘엔 여름은 물론 사계절 언제나 즐기는 연중음식으로 각광받는다. 경기도 여주의 천서리막국수는 강원도 춘천막국수와 더불어 막국수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다. 새콤한 물막국수와 매콤한 비빔막국수로 사시사철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발원한 한강은 굽이굽이 흐르고 흘러 서해로 향한다. 수상교통이 중심을 이루던 시절에 한강의 4대 나루는 서울의 마포나루와 광나루, 여주의 이포나루와 조포나루였다. 뱃길을 따라 오가는 각지의 백성들과 특산물이 잠시 머물렀던 교통 요충지가 바로 여주였다. 금사면 이포리의 옛 이포나루터에서 이포대교를 건너면 막국수 식당 간판이 곳곳에 내걸린 마을이 나온다. 이름하여 천서리막국수촌이다.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이들 식당은 독특한 맛과 향으로 미식가들을 불러모은다.

물막국수 ‘새콤·담백’ vs 비빔막국수 ‘매콤·개운’

다른 막국수나 냉면 음식이 그렇듯 천서리막국수도 물막국수와 비빔막국수로 크게 나뉜다. 물막국수의 재료와 조리법을 보자. 메밀가루와 고구마 전분을 섞어 반죽한 뒤 국수틀로 국수를 뽑고 이를 끓는 물에 넣어 삶아낸다. 국수가 부드럽게 익으면 건져내서 찬물에 넣고 행군다. 물막국수의 맛을 좌우하다시피 하는 핵심요소는 동치미 국물이다. 오이, 배, 열무, 배추, 사과, 미나리 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 재료를 넣어 1주일 가량 숙성시켜 국물로 우려내면 깊고 은근한 맛의 국물이 만들어진다. 이 국수와 국물에 돼지고기, 오이채, 배, 양념장, 깨소금, 계란 반쪽 등의 고명을 얹으면 한 그릇의 물막국수가 탄생한다. 돼지고기 고명은 앞다릿살을 재료로 하되 폭 삶아 양념한 뒤 먹기 좋은 길이로 찢어 넣는다.

다음은 비빔막국수 만들기. 메밀가루와 고구마 전분을 반죽해 국수를 뽑고 끓는 물에 넣어 삶아내는 등의 과정은 물막국수와 같다. 이 국수에 다진 편육과 오이, 배를 채로 썰어 올리고 그 위에 양념장과 깨소금, 그리고 반 토막의 달걀을 차례로 얹거나 뿌려준다. 여기에 부드러운 김 가루도 넣어 시각적·미각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물막국수와 비빔막국수는

1. 단백질 풍부한 편육은 탄수화물이 많은 막국수의 효능을 높여주는 단짠 음식이다.
2. 다양한 야채와 과일 재료로 숙성시켜 만든 동치미 국물.
3. 어슷썰기로 상에 올려지는 무김치, 젓갈 등 각종 재료를 넣어 정성스레 만든다.



경기 여주의 대표 음식 '천서리막국수'. 입맛과 기호에 따라 물막국수와 비빔막국수를 골라 먹을 수 있다.

새콤·담백한 맛과 매콤·시원한 맛을 각각 선사한다. 물막국수는 국수와 고명, 동치미 국물이 삼박자를 이루며 입맛을 끌어당긴다. 특히 10여 가지의 채소와 과일로 만든 동치미 국물은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을 감칠맛과 함께 느끼게 한다. 비빔막국수는 매콤한 양념장과 함께 비벼서 먹다 보면 후끈한 열기가 느껴진다. 이를 다독겨려주는 게 바로 따끈한 육수다. 비빔막국수를 3분의 2가량 먹었다 싶을 때 육수를 마셔주면

운맛을 이열치열로 다스려줘 입안이 오히려 개운해진다.

막국수의 맛을 더해주는 게 무김치 반찬이다. 젓갈 등 각종 재료와 함께 숙성시킨 무김치를 어슷썰기해 상에 올리는데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다. 새우젓, 다진 양념, 겨자를 섞은 소스에 찍어 먹는 돼지고기 편육 또한 막국수의 효능을 높여주는 주역 중 하나다. 막국수의 탄수화물과 편육의 단백질이 조화를 이루며 미각을 한껏 살려준다. [▶](#)

파사성

남한강이 유장하게 흐르는 천서리 주변에는 역사의 흔적과 자연의 풍취를 살펴볼 수 있는 관광지들이 많다. 그중 하나가 천서리막국수촌의 북쪽에 있는 파사성(사적 제251호)이다. 파사산(해발 230m) 정상을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1천800m가량 이어진 신라 시대 석축산성을 걷노라면 주변의 산야와 어우러진 남한강의 장엄한 절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진 파사성. 아래로 남한강과 이포보, 이포대교가 보인다.

막국수촌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이포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남한강의 풍경도 아름답

다. 유람선 모양의 이 전망대에서는 바로 앞의 이포보는 물론 이포대교를 관망할 수 있다. 담양리섬을 산책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강 건너의 이포나루터에 가면 옛 나루터의 흔적은 물론 이곳을 지나 영월로 유배 가던 조선 시대 단종의 통곡 소리가 아련히 들려오는 듯하다.

여주시 여행 정보

1일 문화관광코스

명성황후생가 → 세종대왕릉 → 효종대왕릉 → 파사성 → 고달사지 → 신륵사 → 영월루

1일 남한강 감상코스

강천보 → 금은모래강변공원 → 강변유원지 → 황포돛배 → 여주보 → 세종대왕릉 → 이포보

관광안내

여주시 종합 관광안내소 031-887-2868
강변유원지 관광안내소 031-882-2406

식당정보

강계봉진막국수 031-882-8300

2019년 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재외동포재단은 내년 재단이 지원할 동포 관련 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각국 동포 관련 연구기관·협회·단체·교육기관 등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동포사회의 교류 증진 및 권익 신장에 기여할 사업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포사회의 민족 정체성 강화, 차세대 동포의 교류 확대, 중국 및 중앙아시아 한글 신문 발간,

한글학교 역사문화 캠프, 한인회관 확충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28일까지 온라인(www.korean.net)과 거주국 공관으로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82-2-3415-0054/0056)나 이메일(pms01@okf.or.kr)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윈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아넷으로



74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희



독자엽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서울서초우체국

보내는 사람 _____
 이름 _____
 주소 _____

 이메일 / 전화번호 _____
 □□□□ -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재외동포의 창' 담당자 앞

0 6 7 5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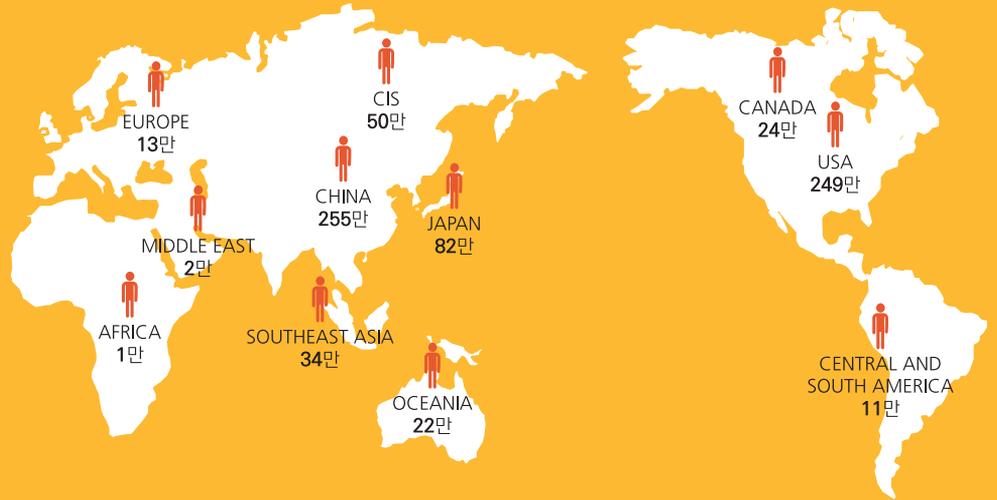
엽서 마감은 2019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2016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입선(김명현 · 중국)
 작품명 : 반드시 우승



'대려시 제22회 조선족 민속문화예술축제' 에서 전통 민속놀이인 줄다리기에 힘을 쓰고 있는 조선족동포들 모습.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